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요엘 2,22-24.26 ㄱ나드

화답송



(후렴) 온갓 열매 땅 - 에서 거두 었 으 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 이 복을 내리셨네.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묵시록 14,13-1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복음 | 루카 12,15-21

성가 | 입당성가 [57]

예물준비 [510]

영성체 [151]

파견성가 [77]

미사 봉헌

한가위 합동위령 미사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는 하느님,

해와 비와 바람을 다스리시어

저희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께 오롯한 감사를 드리고

조상을 공경하며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여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어르신, 노약자를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한가위 야외 행사(9/24)

출발 : 08:30 Broadway 31st 뉴튼수도원으로 출발

차내: 긴 연도 바치기

미사: 11시, 미사후 추모의식과 짧은 연도 바치기

점심: 12:30, 레크: 13:30(각단체별 몸으로 말해요, 줄다리기,

풍물, 전국노래자랑) 출발: 16:30 맨하탄으로 출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의 교우분들이 함께 한가위 미사를 봉
헌하고, 즐거운 게임을 즐기시는 자리입니다.

추모예절 알림사항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공동 의식 거행의 때를 ‘미사 전
이나 후’(제135조 2항)로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례와 비
전례적 신심 행위를 혼합하지 말아야 한다.’ 보편교회의 가르
침을 따라야하기 때문이다.(교황청 경신성사성, 대중 신심과 전례에
관한 지도서: 원칙과 지침, 2001, 73-74항 참조) *따라서 2023 맨
하탄 본당의 <한가위 추모예절>은 미사후에 하시겠습니다.

▶2024년 부활절 세례,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교리 첫만남: 2023년 10/8(주일), 교육관 3A

세례일: 2024년 3/30(토) 부활성야

교리시간: 매주일 오전 11시 *교우분 한명이 예비신자 한 명을
인도한다는 지향으로 주변에 권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야 한다.”

신청: 사무실 347.834.5784

▶어르신, 노약자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기쁨
을 전하고, 교리를 해드려,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예비신자분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단기 출석교육’ 또는
‘직접 방문하여 교리’ 가능합니다.

▶풍물패 ‘신명’ 단원 모집

머나먼 타지에서 우리의 문화를 지키며, 신앙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명나게 풍물하실분을 찾습니다.

모임: 매월 둘째, 넷째 주일 2pm-4pm

조건: 함께 신~명나게 풍물 하실분

소속: 선교홍보분과, 연락처: 한안나 917-940-2977

▶주일학교 교사 모집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교리 교사로 봉사하실 청년들을

기다립니다. 신청: 김가롤로 신부님

▶성경공부 (BIBLE ACADEMY 2학기) 예언서

주일반	오늘(9/24) 휴강	효주수녀
목요반	매주 목, 10am-11:20am	교육관, 3A

▶교우분들은 미사전 독서와 복음 읽기에 참여합시다

미사전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미사에 참여하면 말씀의 식탁에
풍성하게 차려진 말씀의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과 피가 됩니다.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전례봉사자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9/24	백이백 아오스딩	송명근 대건안드레아	고은경 모니카	고은경 모니카	신부, 수녀	한서희데레사 최예준사도요한
10/1	장혜윤 크리스티나	민완준 필립보	김애희 테클라	김애희 테클라	유정욱 유스티나	김승연마리아 양지수글라라

▶2024년 성지 순례단 모집
"약속의 거룩한땅, 요르단, 이스라엘"

날짜: 2024년 4월 15일~ 26일(11박 12일)
 순례지: 모세구리뱀 느보산, 와디럼광야체험, 사해, 베들레헴, 주님성탄성당, 유다광야, 꿈란공동체, 예리코유혹의산, 나자렛, 주님탄생애고성당, 갈릴레아, 베드로생가, 갯세마니, 거룩한 무덤대성당, 승천성당 등. 인솔: 신부님, 수녀님 경비: \$3,700
 예약금: \$500 문의:박알버트 646-201-0175 선착순 30명 9/30까지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32 St.- 33 St.) New York, NY 10001
Tel: 347-840-2112 Fax: 212-631-8070 hanbittour@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INE & LIQUOR
윈다김 데레사 (FREE DELIVERY)
212-265-0333 MON-SAT:10AM-10PM / SUN:12PM-9PM

WONJO
New Wonjo
212-695-5815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루카 12,15-21

교구청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며칠 전에 아령이 필요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자신의 계정이 연결된
모든 SNS에 아령과 관련된 광고가
연속해서 뜬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광고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 광고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나에게 물어봤다.

방으로 돌아와 검색을 해봤는데,
요즘 인터넷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어떤 취향인지
무엇을 검색하는지 저장해 두었다가
그것과 비슷한 것들을
인터넷이 먼저 검색해서
사용자에게 제시해 준다.

그것을 없애려면
다른 것을 찾아보거나,
검색을 멈추는 것밖에 없다고 알려주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구조가 비슷했다.

길을 걷다 내가 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일상의 사물에서, 만나는 것들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을 발전시키고,

그것이 내 품에 들어올 때까지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우리가 머릿속으로 세상의 것
돈, 명예, 건강, 행복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의 알고리즘은
우리를 세속적인 것으로 안내한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내 안을 하느님의 것으로 채우면서
하느님을 생각하면, 알고리즘은 우리를
영적인 것을 끊임없이 찾고자 안내한다.

추석을 맞아 가족이 모였을 때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신앙 알고리즘은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용현 베드로 신부